

# 지역 정치권 분열... 현안 차질

# 강운태 대선 레이스 본격화

## 광주 DJ센터서 1천여명 참석 출판기념회

### 우리-민주-중도통합-민생정치모임 4분

### 정파 떠나 '협의체' 구성 등 대책 세워야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지형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대선 이전에는 통합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당분간 열린우리당, 민주당, 중도통합 모임, 민생정치 모임 등으로 분열하면서 지역 정치력 약화에 따른 지역 현안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김태홍 의원(광주 북 을)은 국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의 기도를 성취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사죄드린다"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똑똑히 기억하며 민생

과 개혁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천정배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민생정치 모임에 참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생정치 모임은 8명으로 의원 수가 늘어났으며 정당대회 이후에도 이상경, 문학진 의원 등이 탈당하면서 민생정치 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또 다른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으며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이 7명(이영호, 강기정, 지병문, 김동철, 서갑원, 정동채, 김성근 의원)으로 감소했

다. 현재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광주·전남지역 의원은 김태홍, 양형일, 주승용, 염동연, 유선호, 우윤근 의원 등 6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탈당한 의원들 간에도 미묘한 노선 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양형일, 주승용, 염동연 의원 등은 중도실용 성향인 중도통합 모임에 동지를 트 반면 유선호, 우윤근, 김태홍 의원 등은 중도개혁 성향인 민생정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당초 우윤근 의원은 중도통합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민생정치 모임으로 유턴했으며 유선호 의원은 막관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민생정치 모임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열린우리당 7석, 민주당 6석, 중도통합 모임 3석, 민생정치 모임 3석 등 다원화된 정당 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중도통합

모임과 민생정치 모임이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결국 통합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계개편의 종착점인 민주 세력 대통합은 빨라야 오는 9월이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곧 지역 정치권의 분열이 오는 9월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력 약화에 따른 지역 현안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지역현안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은 4가지 정파로 형성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 분열에 따른 현안 차질을 막기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지역현안 협의체 구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선거 도전을 선포한 강운태 전 의원(빛나는 대한민국연대 대표)이 1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똑똑한 정부 빛나는 대한민국'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가진 대규모 출판기념회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강 전 의원이 12월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인지 이날 출판기념식에는 광민 스님, 조비오 신부, 배아숙 목사, 문병란 교수, 오병문 전 교육부 장관, 고재유 전 광주시장, 김경천 전 국회의원,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 총장,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정·관·학·종교계 등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로 포함, 1천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하는 등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개혁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며, ▲국민의 행복 ▲국가경쟁력 ▲세계표준화에 가치 기준을 두는 창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은 황해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문화관광산업·첨단부품소재산업·생명산업 등을 중점 추진,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또 "봉사하는 정치, 봉사하는 정당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통합과 창조 리더십을 발

휘해 나가겠다"며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결사체인 기청 '국민봉사정치연합'을 결성, 2단계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기존 정치권과도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빛나는 대한민국연대'는 지난해 2월에 창립대 전국 13개의 광역 시·도 단위의 본부와 150개 시군 단위지부에서 3만여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에 이어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가진 뒤 오는 5월 정치결사체인 기청 '국민봉사정치연합'을 출범시킨 뒤 본격 대선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강운태 전 의원의 저서 '똑똑한 정부 빛나는 대한민국'의 출판기념회가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박근혜-이명박 '후보검증' 논란 확산

## 朴 "이명박 실상 밝힐 증거 있다" 李 "문제 있다면 예정대로 밝혀라"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시장>

한나라당 대선후보간 '후보검증' 논란이 본격 확산되고 있다. 지도부의 거듭된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1일 자신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응전' 입장을 밝히고, 이에 검증론의 참병에 선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12일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증공방은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의 전날 검증론 비판 발언에 대해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밝힌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던 내용이 만일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정치의 한 구석에 묻히고 있는 제가 스스로 자살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며 "제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잠시 쉬라는 음표에 따라 쉬고 있을 뿐"이라며 추후 공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주요영

비서실장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증하네 마네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반박했다.

주 비서실장은 특히 "정 변호사가 캠프 법률특보인 만큼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로 밝혀질 경우 박 전 대표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증론을 놓고 최고위원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은 "내부에서 서로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 혼란을 주제로 올려 놓으면 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 측 전언어 최고위원은 "어떤 말을 할 때 진정성을 주려면 후보가 아니라 당을, 당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을 넘어 이 나라를 생각한다는 진정성이 전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막말·야유 난무한 대정부 질문

### 한나라 이원복 의원-한 총리 질의 답변서 공방

국회의 12일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간에 막말과 독설, 야유가 난무하는 낯뜨거운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이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난하는 과격 발언을 내놓은 게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이 정권은 4년간 개혁을 외치면서 주사를 쏘고"라며 "앞에서 개혁을 외치면서 뒷구멍에서 하는 일이 다르니까 민심이 등을 돌렸다"고 한 총리를 자극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체사상

신봉자를 비롯해 친북좌파에 휘둘림을 당했다"며 "우리당 의원들은 당을 떠나면서 평양식당 아가씨처럼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한 총리는 평소의 차분한 답변태도와는 달리 정색을 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 정권이 친북좌파나 주사파와 연계됐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 상황이 없다"며 "이라크에 파병하고 핵실험 이후에 지원을 끊는 친북 좌파가 있는가"고 맞받아쳤다. 한 총

리는 또 "이 자리는 정책을 하는 자리이지, 색깔론이나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발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의원은 "세월하송한 4년이었다"며 "언제나 남의 탓, '조·중·홍' 탓, 한나라당 탓만 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개판을 쳤다"고 공격했다. 또 "이 정권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출발해 지지분하게 몰락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나치가 망하듯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등 거친 표현을 총동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무과할 수 없다는 듯 "개관이란 말은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연합뉴스

### "이명박은 거품주, 박근혜는 상속주"

#### 우리당 민병두 위원장

열린우리당 민병두 후보기획위원장은 12일 한나라당 대선주자 '박 3'를 각각 주식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민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최근 신문을 보면 대선이 한나라당 후보간에 치러지는 것 같지만 후보 면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여야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

장을 '고평가 거품주'로 규정하고 실제 콘텐트에 비해 고평가돼 있는 만큼 언젠가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며 "상대적으로 지지세력 결합도, 충성도가 낮다. 일시적 이슈에 따라 지지도가 형성된 것이므로 장기적으

로 끌고 나갈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야보합 상속주"라고 주장하며 "자기 이름으로 정치해야 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미국에 가서는 펠로시, 라이스, 힐러리 이름으로 하라 한다. 타인의 이름을 빌린 상속주치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공인중개사

**3월 2일 첫진도 개강**

**전국수석 배출** /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주택관리사** / **1위**

본원 ☎ 227-8003 / 첨단점 ☎ 971-0002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2007년(上) 제17기

지적종별	연수 단계	교육 과정	이수시간 (누계)	모집 및 이수방법
한자·한문 2급 지도사	1단계 과정 (온라인 지도사 과정)	①한자·한문 ②한자·한문 ③한자·한문 ④한자·한문	90시간 (연4개월)	일반모집
	2단계 과정 (온라인 지도사 과정)	①한자·한문 ②한자·한문 ③한자·한문	90시간 (연4개월)	과외생 모집(일반인)
한자·한문 1급 지도사	3단계 과정 (온라인 지도사 과정)	①한자·한문 ②한자·한문 ③한자·한문 ④한자·한문	90시간 (연4개월)	과외생 모집(일반인)
	4단계 과정 (온라인 지도사 과정)	①한자·한문 ②한자·한문 ③한자·한문 ④한자·한문	90시간 (연4개월)	과외생 모집(일반인)

**제 7회 전국 한자한문 3·2급 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공고**

\*일 시: 2007년 7월 7일(土) 15:00 \*장소: 도청전 이공관교육관 및 전국시도본부

\*합수기간: 2007년 5월 28일~6월 18일(3주) \*응시자격: 국민 누구나 응시가능

\*응시료: 3급지도사: 1단계 70만/2급지도사: 1,2단계 100만

\*시행 및 주관: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인준회 \*후원: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사)국어교육전문학원

**광주지역본원** 062)971-4747, 972-4747, FAX.973-4747 (01)973-4477, 휴.017-610-9393, 017-609-9393

#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별 지점모집

한국셀기세포은행 광주지사 (062)373-3475 (새도치로)

아래 지정 병원과 상담하세요 [www.koreacellbank.com](http://www.koreacellbank.com)

**지정 병원** 전남등부지점(순천, 여수, 광양) 061-743-3475 • **광주** 광진 첨단하나병원과 973-0910 이항의원 953-7582 고은의원 951-9011 다나가정의학과의원 955-1888 소촌연합의원 943-587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담양** 한중가정의원 675-8075 정내과의원 226-1616 아성재이비인후과 366-2538 **동구** 본정형외과의원 236-3501 은누리가정의원 234-7571 **북구** 한솔내과의원 575-0075 성보의원 526-7772 양지정형외과의원 571-2277 삼각연합의원 251-0042 장수연합의원 062-266-7598 희망의원 573-5451 현대정형외과 529-1101 국민근비후과의원 573-9975 한빛신경외과의원 574-7582 우병진내과의원 269-3300 **서구** 파스트의원 384-0044 다.통증의학과의원 651-7578 한사랑통증의학과의원 385-7582 호암신부인과의원 681-0800 • **진남** 광안 정외과의원 792-8561 **미주** 이필수의과의원 332-9800 **목포** 성모의원 242-5554 천호의원 274-7077 아름다운의원 274-8275 **순천** 금강병원 720-3500 **영광** 김기영내과 353-7521 **장성** 삼성의원 395-3800 김내과의원 393-7533